광주·전남서 백신 접종 후 사망…"인과관계 조사"

방역당국 "지역내 백신 관련 사망 없었다" 막연한 불신확산 경계
광주 60대 전국 첫 모더나 관련…순천 30대 화이자 접종 후 사망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백신과의 인과성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만 "지역 내에서 그동안 백신접종에 따른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며 백신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신확산 등을 경계하고 나섰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65)씨는 이날 오전 1시33분께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뒤 2~3일 후 피부발진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지난 3일엔 복통과 구토 증세가 심해졌고, 119 구급차량으로 북구의 한 중형병원으로 이송돼 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는 되레 악화됐다. 결국 이날 밤 늦게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모더나 접종 관련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전국적으로 이번 광주 A씨 사례가 처음이다.

광주에서 그동안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57만 2188명, 2차 접종 완료자는 21만 514명으로, 이 중 이상반응을 호소한 시민은 2333명이다. AZ 1415명, 화이자 532명, 얀센 161명, 모더나 125명 등이다. 이들 중 중증이상 반응은 사망 11명, 중증 12명, 아나필락시스 4명 등 27명이며 백신접종에 따른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3명에 불과하다. 이들 3명 모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이며, 사망자는 없다. 또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9명이 정부로부터 각각 병원비 30만원 미만을 지원 받았다.

전남 순천에서도 지난 1일 장애인 여성 수영선수 B(31)씨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나흘 만에 숨졌다. B씨는 1차 접종 후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등 이상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수영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평소 건강했는데 백신을 맞은 뒤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 B씨의 사망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지 부검, 기저질환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사망 또는 중증 이상 반응을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며 "백신접종만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가족, 지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백신접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4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 마련된 김홍빈 대장 분향소에서 장례위원과 동료 산악인들이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김 대장은 장애인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지난달 하산 중 실종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당신의 끝없는 도전, 영원히 기억될 것"

김홍빈 대장 '산악인장'으로 장례…8일 영결식
염주체육관 분향소 추모객 발길…정부 '청룡장' 추서

'열 손가락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달성한 뒤 하산길에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장례 절차가 4일 산악인장(葬)으로 시작됐다. 이날 정부의 체육훈장 '청룡장'도 추서됐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김 대장의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을 직접 찾아 고인의 영정을 모신 제단에 청룡장을 안치했다.

청룡장은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으로,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가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황 장관은 청룡장 추서식을 거행하고 나서 "김 대장이 살아오신 치열한 삶과 끝없는 도전정신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김 대장 발자취를 남기고 업적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장의 분향소가 마련된 염주체육관 1층에는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 대장과 오랜 추억을 함께 쌓아왔던 지역 산악인들이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았고,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오전 10시께 분향소를 찾아 합동 참배했다. 분향소에는 김 대장이 평소 사용했던 등산 장비가 유품을 대신해 안치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계 인사와 단체가 보낸 추모 화환은 분향소 한편을 빼곡히 채웠다.

한편, 브로드피크 원정에 참여한 광주 출신 대원 3명은 전날 늦은 오후 귀국했으나 김 대장의 장례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이 머문 파키스탄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위험 국가'로 지정되면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2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김 대장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절차인 영결식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가족, 동료 산악인 등이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배웅할 예정이다.

김 대장은 지난달 18일 오후 4시 58분(현지 시각)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브로드피크(8074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조난 사고를 당했다.

김 대장은 조난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러시아 구조팀에 의해 발견된 후 주마(등강기)를 이용해 올라가다가 추락한 뒤 다시 실종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동명동 대표문화마을 본격 조성

다음달 착공, 내년 3월 개관…옛 도교육감 관사 리모델링

광주시는 "동구 동명동에 조성하는 광주 대표문화마을 사업의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달까지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사업 부지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탁·관리 중이던 기획재정부 소유 잔여지 20㎡를 지난달 매수하고 소유권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옛 전남도교육감 관사를 리모델링해 관광 안내·주민 커뮤니티·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명동이 간직한 정체성을 살려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전일빌딩245 등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옛 전남도교육감 관사의 적벽돌 외관을 최대한 살려 과거의 의미와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내부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동명동의 역사적인 감성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내진 보강 설계를 적용해 안전에도 중점을 뒀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영근 광주시 문화기반조성과장은 "향후 동명공간의 정체성에 적합한 브랜드 아이덴터티(BI)를 개발하고 적합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동명공간이 대표문화마을의 관광·문화거점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체계를 개관 전까지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 허용' 재확인

기독교단체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서울의 교회와 목사, 신자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관계자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예자연은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될 염려가 있어 대면 예배를 불허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내린 것과 사실상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급매물과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중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신 용

진도군 공고 제2021 - 596호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계획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4.

진 도 군 수

1. 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 계획시행자/승인기관 : 진도군수/전라남도지사
-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관내 소하천 일원
- 규 모 : 진도군 관내 소하천 59개소(L=87.015㎞)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1. 8. 4 ~ 2021. 9. 1(공휴일 제외, 20일 이상)
- 공람장소 : 진도군 건설교통과, 각 읍·면사무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21. 8. 13.(금) 14:00
- 장 소 : 진도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진도읍 남동1길 46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개최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설명회는 진도읍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실시할 계획이며,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4.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내용 :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해당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에 등록
- 제출장소 : 진도군 건설교통과, 각 읍·면사무소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건설교통과 자연재난팀(☎ 061-540-34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송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010-9989-7465
기 도 희

해산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1차)

성산유화 주식회사는 2021년 07월 12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해산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산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의 기간 내에 회사의 본점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5일

성산유화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군서로 394
청산인 정인성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강동식(771228-X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대치길 101-4 (금산리)

피상속인 망 강동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느단43호로 신청하여 2021년 7월 3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8월 5일
- 상속인 : 강남식(690212-XXXXXXX) 군포시 광정로 122, 1005동 104호 (산본동, 주몽아파트)
- 신고기간 : 2021. 8. 5 ~ 2021. 10. 14.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강남식의 주소

산행안내

8월22일(일)

▲광주kj산악회 8월22일(일) 경북 충북, 괴산, 문경&백두대간 대야산 정상 비로봉 선유동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녹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